

## IV 맺음말

- 영국은 예금보험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유사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계정을 도입함.
- 공동계정이 도입된 예금보험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첫째, 영국의 예금보험기금은 사후각출을 통해 비용이 충당되며 유사시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을 통한 자원조달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공동계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예금보험기금의 연간 보험료 부과한도가 각 하위그룹별로 설정되어 있고 총 한도는 최대 41억 파운드임.
  - 셋째, 회수된 자금은 규정에 정해진 순서와 부담금 규모에 따라 분배됨.
- 그러나 영국은 공동계정을 도입한 이후 보험료 분배의 형평성 문제<sup>39)</sup>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sup>40)</sup>
  -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재무성으로부터 차입한 200억 파운드 중 원금손실분인 50억 파운드에 대한 처리방식(예금계정 부담, 공동계정 부담, 공적자금 처리)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sup>41)</sup>

39) 영국은 동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업권별 보험료가 각 업권별 파산 가능성에 따라 공평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는 등 많은 검토를 거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권(특히 building societies)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재 보험료 책정과 관련하여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40) Timothy Edmonds(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와 FSA(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를 참조함.

41) 영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투입된 보험금 중 원금손실분인 50억 파운드에 대한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공동계정 도입과 관련하여 그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